

주의 공헌 대축일

기도서 P. 237 A해

- 1독 (이 사 60, 1-6절)
- 2독 (에 페 3, 2-3.5-6절)
- 복음 (마 태 2, 1-12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전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론 □

동방의 세 박사가 됩시다

서 석 구 신부



산짐고 물진너 이억만리를 오로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는 일편단심으로 동방 박사들은 온갖 피로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기뻐 어쩔줄을 몰랐습니다(마태 2, 11). 그리고 그들은 값진 보물을 예수께 바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값진 것을 가지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값진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만큼 값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곳에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동방 박사처럼 가장 가치있게 바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가장 값진 것을 가장 훌륭한 분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빛을 따라 주님께 조배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헤로데의 유혹도 있었고, 추위와 장거리 여행의 피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 조배와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왕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습니까. 한 임금의 황금을 드렸고, 다른 한 임금은 유향을 드렸으며, 또 다른 임금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상징하며, 유향은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과 감화력 있는 뜻을 나타내며 몰약은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세 박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는 아는데 그분께 가지 위해서 자기를 끊고 따르기로 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전부 바치지 않고 미련을 두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가는데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 명예, 이기심, 교만등... 그러나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곳은 떠나고, 바칠 것은 정성껏 바쳐야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결단성이 신앙인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했는데 장기를 잡고 뒤통을 돌아다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동방의 박사가 됩시다. 별빛을 따라 주님께 조배드리러 갔듯이 생명의 인도로 참된 신앙의 길로 갑시다.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구름길 날은 볼 수가 없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처럼 주님을 알고 그분께 조배하러 갑시다 (함열 천주교회 주임신부)



기도하나다

주여 새해에는 제 책임을 질 줄 알게 하소서.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창세기 3장).

저는 얼마나 많이 제 잘못을 합리화 하려고 핑계를 대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소서.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겸손되이 말할 줄 알게 하소서.

몸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특히 높은분들도 돌보아 주소서.

구조적인 폭력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연내에 인상없음"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새까만 연탄 한 장이

가난한 형제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억지로 만들어지는 "무엇"도 없게 하소서.

이러한 폭력이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참다운 「총화」를 깨뜨림을 알게 하소서.

굴복(=힘이 모자라서 복종함) 보다는

승복(=용납하여 좇음)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린이들도 <힘의 우월>만을 믿지 말게 하소서.

힘으로 보다는 용서할 줄 알게 하소서.

어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보호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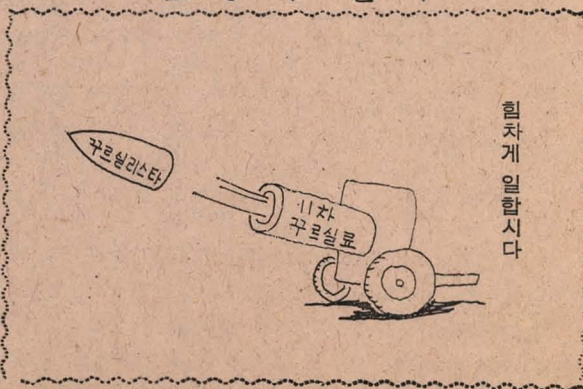
저것을 배우지 말게 하소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바른 것을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숲 정 이 산 채



문 정현 신부의 670 일



〈교구청을 들어서는 문신부〉

□ 1976년 3월 1일

3·1절 기념 기도회 열림... 서울 명동 성당에서

□ 1976년 3월 2일

문정현 신부, 당국에 의해 연행됨... "3월 2일 오후 6시경 경찰에 의해서 연행된 문정현 신부님은 남문교회 은명기 목사님과 2대의 승용차로 오후 7시에 전주를 출발하여 오후 10시 35분경에 서울 시경에 도착하여 현재 모 기관에 연행되어 있다고 한다". (윤정이 제172호 참조)

□ 1976년 3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3·1절 기도회 사진에 대한 성명」 발표

1. 3·1절 기도회 사진으로 말미암아 신부 3명이 구속 입건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몇몇 재야인사 및 개신교측 목사와 전직교수 수명과 함께 정권탈취를 위한 정부 전복을 음모 책동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부들이 재판된 이래 기도회를 통하여 사회정의 및 인권수호를 거듭 제창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취해왔음을 알고 있으며 아울러 이런 행동이 그들로서는 그리스관 신앙과 애국심에 입각한 판단의 발로였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의미로도 현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일은 결코 없었고, 또한 이번 3·1절 기도회에서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연루된 신부들이 마치 현 정부의 전복을 모의한 양 발표된데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이 사건이 앞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다루어질 것을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그것은 입건된 모든 이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뜻한다.

3. 우리는 계속 이 사건의 처리를 주시하면서 관련된 신부들이나 교회 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시편 133)

우리들의 목자 한 분이 1년 10개월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오셨다. 바르톨로메오 문 정현(文正鉉)신부, 바로 이분이다.

형제들이 한데 모여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이다지도 좋은 일인데, 왜 우리는... 그래서 그 670일을 간단히 훑어 본다.

4. 앞으로 시국 기도회는 1975. 2. 28일자 주교단의 행동지침을 따라야 한다". (윤정이 제174호 참조)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오후6시, 주교 8분과 사제 200여명, 평신도 2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입건된 사제들을 위한 미사」 봉헌 (윤정이 제175호 참조)

□ 1976년 5월 3일

전주교구 사제단, 「우리의 태도」 발표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입건된 형제들의 공판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땅에 신앙을 기쁘히 전해주시고 신조들의 귀한 피로써 그 신앙을 가꾸어 주신 하느님께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 앞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이미 한국교회 주교단은 3월 15일 성명을 통하여 3월 1일 기도회는 현 정권의 전복을 음모한 사건이 아니며 그리스도교 신앙과 애국심에 입각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주교단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입건되어 재판받는 형제들의 신앙심과 애국충정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진술, 충분한 변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됨으로써 그들의 신의가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어느 한 사람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술책이나 책동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6·25와 같은 가장 불행한 동안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이가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며 일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교회가 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이들과 병든이들,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이들의 편에서 기도하며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쇄신을 위해 회심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이웃

☆고교·대학 진학, 공무원 고시 전문 !!

이리경문학원

◎이리역앞(서울 신탁은행4층) ☎ 5943

- 검정 고시반(78년4월, 8월대비) 대입검정·고입검정
- 고입 종합반 □ 대입 종합반
- 4·5급 공무원반(행정직, 교정직, 농조, 검찰)

☆ 제1차 성직자 수도자 명신도 목상회☆

성령쇄신세미나

일시: 1978. 1. 17-21(4박 5일)

장소: 전주 가톨릭 센터

신청은 1월 10일까지 50명(선착순)

회비: 10,000원(사진대 포함)

적극적인 자세로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세요!
(2차계획 미정, 이번기회 이용바람)

에게 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순정이 제181호 참조).
문정현 신부의 아우 문규현 부제가 사제서품을 받음... 오전 10시, 중앙성당에서.

□ 1976년 5월 4일
아침 9시부터 첫공판 시작

□ 1976년 8월 3일
검찰의 논고...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 1976년 8월 14일
제1심 선고...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이상 순정이 제181~198호까지 14회에 걸쳐 연재된 「3·1사건 공판 방청기」 참조)

문정현 신부의 죄목...1975년 9월에 김지하(프란치스코) 시인의 양심선언과 “경과보고”를 유인물로 배포하고 기도회에서 낭독하였고 76년 2월 16일 전주에서 개최 되는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에서 낭독한 「김지하 모친의 호소문」을 기초하여 낭독하고, 병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도회에서 동 호소문과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긴급조치를 위반하였다. (순정이 제198호 「3·1사건 공판 방청기 ⑩」 참조)

□ 1976년 10월 14일
법호인단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

□ 1976년 11월 13일
아침 10시 15분부터 항소심 시작

□ 1976년 12월 29일
항소심에 대한 선고...원심을 깨고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이상 순정이 제209~216호 참조)

□ 1977년 3월 22일
상고심에 대한 확정판결...민부가 대법원장등 16명의 대법원 판사들, 상고를 기각한다는 확정 판결함. (순정이 제227호 참조)

□ 1977년 3월 28일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3·1사건 유죄판결에 임한 성명」 발표(순정이 233호 참조)

□ 1977년 4월 18일
한국 정의구현 전구 사제단 「77선언」 발표(순정이 제231호 참조)

□ 1977년 12월 31일
아침 10시 18분경, 문신부 형집행 정지로, 중앙 정부부원에 강제로 끌려 돌아옴

□ 1978년 1월 1일
문신부는 신년교례회에서 교구장을 비롯한 교구사제단과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위 긴급조치 위반자 김지하시인의 무조건 석방과 인혁당 사건의 공개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때, 형집행정지 취소를 불사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보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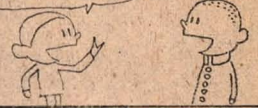
□ 그간 많은 분들의 성금이 담지되었고, 정경주관 정령미사와 신구교 합동 월요기도회 등이 있었다.



〈한영 간담회〉

요십이 (232) 김병오

문신부님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또 고생을 하면 어떨려고? 내마음은 강철같이 굳어있어!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가슴을 쳐봅시다



익크! 함마 자루가 부러졌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찾아 주세요 □
이 신경 외과 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매구집)
전화 ③-9793
원장 이 종 두(헨리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③ 4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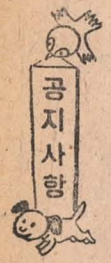
남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③ 8342
군산 청과시장 ☎ 3032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킬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금 · 은 · 보석 ·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발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구 연감 제작>이나 <간단한 중식 제공>이 저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불비스러움이 많았습니다.
너그려이 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씩씩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은 가톨릭 센터와는 무관한 일임을 덧붙여 알려 드립니다.
<연감>은 준비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全州教區 平協—
2. 분당 실무자 교육 (11일 <수>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분당 사무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레지오마리에 연수회 (14<토> 오후 2시~15<일>일, 가톨릭 센터. 회비 1인당 2천원)
※ 접수—14일 12시부터, 대상—자 Pr. 간부중에 2명씩
4. 혼인문제 상담일 (9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 축! 새 무르실리스타 39명 (사제 4명 포함) 탄생



(중앙)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오진영
보좌 신부 박성배
사도 회장 이복

전화 ③3651
3874

1. 푸리아 월례회 : 8일 오후 2시, 강당
 2. 사도회 임시총회 : 9일 밤 8시, 강당
 3. 삼지회 임시총회 : 12일 저녁 6시, 양쌍수 형제택
 4. 매일 축일표 사무실에 있습니다 (50원)
 5. 미사참례때 성경·성가집 지참 바랍니다.
- 감사헌금 : 50,000원 (익명)
 지난주 봉헌금 : 175,491원

(노송동)

주임 신부 공영희
보좌 신부 아용중
사도 회장 박영희

전화 ③7032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저녁 8시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신우회 월례회 : 오늘저녁 미사 후
 4. 공소회장 회의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방학동안의 아동미사 : 매주<토> 오후 3시
 6. 가톨릭 시보·경향잡지 구독 희망자는 이주일내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6,596원 감사합니다.

(덕진)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전화 ③2182

1. 회장단 선거 : 15일 공식미사 후
 2. 75년 3월 29일 영세자 모임 : 14일 오후 7시 반, 회비 5백원, 사제관 회의실에서
 3. 예비자 교리 : <토> 밤 8시
 4. 제대 꽃·초 봉헌, 미납된 신축헌금 완납 바람
 5. 78년도 봉헌금 신입 사무실에
 6. 어린이 교리 : <일> 9시
 7. 교리교사 서제성(베드로) 수고 많겠습니다.
 8. 판공성사 미필자는 성사표 받아가지오(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 49,005원, 더욱 정성을...

(복자)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전화 ③5238

1. 아래 이거자
중앙성당에서—(태 2가) 남 62 여 59, (병답자) 남 7, 여 17, 계 147명이래 (세대수 43세대)
파티마 성당으로(효자동, 완산동, 화산동)—남 52, 여 114, 병답자 남 24, 여 33 계 123명이거 (세대수 104)
2. 특별헌금 감사합니다.
제주대—다 3가 정안나(1만원), 제대초대—다 4가 유마리아(2,500원), 난로 톱밥—중 2가 오혜레나(6천원), 정베로니카(6백원)

3. 병자성사 및 봉성체 (7명), 조바오로 자가용차 1일 제공
 4. 봉헌금(주일·연중) 봉투제 실시, 십일조 정신으로...
 5. 아기예수께 예물(외인 인도 서약서)을 속히 드림시다
- 지난주 봉헌금 : 203,880원 (교무금 포함)

(서학동)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전화 ③2276

1. 레지오 간부회 : 산교주일 10시미사 후
<안건-예비자 안내, 레지오 연수회>
 2. 기증 감사합니다 :
성당 벽시계—현분도 신부님, 미사안내판—유순이
 3. 판공성사 못보신 분 미사 전후에 보세요
 4. 77년도 교무금 속히 납부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8,050원

(숲정리)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전화 ③7366

1. 사목교서 교육 : 8일 오전 10시
 2. 요안회 조직 : 8일 공식미사 후
젊은 남자분들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3. 학생회 총회 : 다음주 학생미사 후
 4. 약속된 봉헌금 매주 봉헌합시다(과년도분)
 5. 반상회 : 5반(9일), 6반(11일), 7반(13일), 4반(15일), 서신 1구(17일)
- 지난주 봉헌금 : 100,420원, 감사합니다.

(전동)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이순중
사도 회장 유석중

전화 ③3222

1. 자모회 : 10시 미사 후, 장우회(저녁 미사 후)
 2. 성가정화 : 월요일 오후 2시, 가정봉헌 미사
 3. 부활영세 예비자 교리 : 일반—주일(장수녀), 금요일(이신부), 학생—주일(이수녀), 젊은이—수요일(유신부)
 4. 글로리아 성가대 정기총회 : 12일 오후 7시 반
 5. 78년도 교무금 신입세대(450), 미신입세대(300)
 6. 파티마 성당 전립금 현재 2,560만원, 미수금500만원
 7. 단체지도 : 자모회·장우회·레지오마리에·성화회·성가정회—김신부, 교도소·중고생·어머니 성가대·성서동지회·일반인 교리—이신부님, 주일학교·젊은이성가대 및 교리—유신부
 8. 대건신협 월례회 : 14일 오후 7시 반
(전화번호 변경 6국 0191~0194번)
 9. 울뜨레아 모임(새희원 환영) :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01,500원